

대학에 와서

생각하건대

누군가 대학교에 와서 이 년간 배운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케팅? 회계? 파이널컷? 기획? 다 찰나의 배움들이었던 것 같고 2년을 연속적으로 배웠던 건 혼자 즐기는 법인 것 같아.

혼자서 산책하고, 전시회 보러 가고, 카공하고 그러다 가끔 소중한 사람들과 밥 먹고.

23.11.12.(일) 12시 5분

birthday-type girl

"당신의 관심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어요.

23.07.29.(토) wisi-eun



2001.04.19. 그녀가 살아졌다

드라마 <무지>

"무지 이면지가 원고지가 될 때까지 참 많이도 글고이웠다. 멋모르고 무지해서 들어왔고 무지하게 사랑했던 내 방송국 무지해서 미워했고 무지해서 사랑했던 내 청춘 희고 빈 무지노트에 기획안을 끄적이고 픽셀에 색을 입히며 젊음이 다 하는 동안 우린 참 많이도 무지하고 무지하고 어마무지했구나"

영화 <SCENE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감독님은 영화 왜 만들어요? 나? 신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죽이는 거지.

와... 인간은 결국 용서를 못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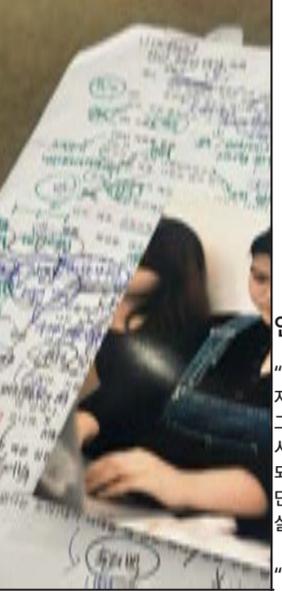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못해 아 그리고 미술팀이 하얀색이 용서 전 빨간 색이 용서 후라고 말해줘

감독님. 근데 이 영화가 결국엔 하고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아 아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이는 거지. 와... 인간은 결국 용서를 못 해?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못해 아 그리고 미술팀이 하얀색이 용서 전 빨간 색이 용서 후라고 말해줘 감독님. 근데 이 영화가 결국엔 하고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아 아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연극 <분별>

"주인이 없는 시대 자기 자신이 신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향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새겨야하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역사 상 청년들이 마약에 가장 많이 취하는 시대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찾은 진정한 신앙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었다."



내 사랑이 이겨

얼마나 멋진 각오이고 위로인지.

졸음 섞인 토익도 눈물 섞인 에세이도 불친절한 사람도 무질서한 지하철도

호방하게 날뛰어도

미안하지만

내 사랑이 이겨

24.03.13.(화) <구의 증명>을 읽고

birthday-type girl

자신감 넘쳤지만 오만했고 배려한다 했지만 또한 이기적이었던 나의 우들을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였다.

무심한 나를 유심히 배려해주는 당신들께 오늘 누리지 않았던 설렘과 기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4.04.19.(금) 스물 세 번째 생일



나에게

다시 태어나도 그녀로 태어날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주저함없이 그럴 거라고 얘기할테다.

그녀의 20대의 절반을 기록하며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눌러 담았다.  
이 마음들이 시간이 흘러도 종이 위에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나로부터

김시은-편집장



# <Serenity Prayer>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Reinhold Niebu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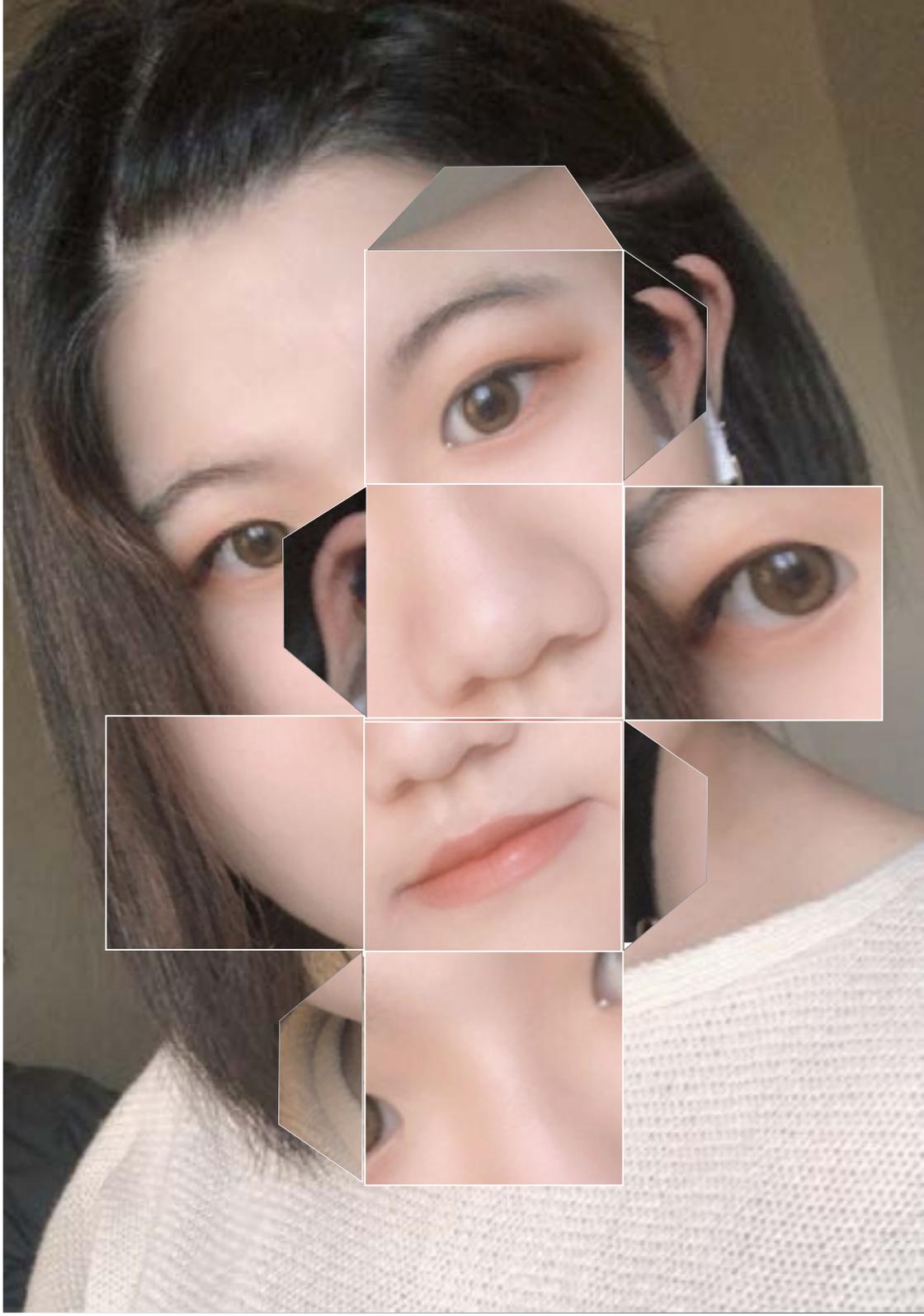


# LEGA'SI' INDE

추천사	12
재수생 여행객	22
기타리스트	34
아크릴 작품	58
영화 감독 되다	72
신에게	96
여행 이야기	104

중간 중간 쉬어갈 에세이들을 넣어왔다.  
부디 피로함 없는 여행이기를 바라며.













# Foreword

## 아빠

### 딸 시은이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원가를 소개하거나 평가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보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더 많이 생활하는 넓고 다양한 공간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고정되고 협소한 관계 속에서 정형화된 대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등 생각의 핵심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관점이 더욱 실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낳고 키우면서 자녀의 사고 체계나 감정적 상황, 의지력 등등 그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점의적 요소에 대해서 가장 오래 경험하고 대면하였으므로 일일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략 근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제한적 요소와 유리한 점 등을 전제로 이제 둘째 딸 시은이를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사고 체계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다. 유전적으로 집착하기는 이 글을 쓰는 아빠와 성격이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렇다면 진득하게 무엇을 암기하거나 어려운 공식을 외고 파고들고 하기 보다는 여기서 일탈하여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엉뚱한 해답을 떠올려보곤 할 것이다.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해보일 것이 분명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의 머리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시도가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창의성에 대한 지향이 소질과 잘 결합되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저 산발적인 공상에 그칠 수도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그러한 자유를 향한 사고와 지향 가운데 좋은 것들은 탄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좋은 열매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품이 참 좋다.

어릴 때부터 선한 마음가짐이 드러났는데

특히 동생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무척 귀여워하여 함께 놀다가

언니를 꼬집거나 때릴 때에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선하고 포용하는 성품을 가졌다.

이는 모든 인간 관계에까지 확장되어 주변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코 반격하거나 복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좀 착한 데다가 크리스천으로서의 후천적 심성이 결부된 결과인 것도 같다. 또한 이런 점은 학구적인 면이나 다른 상황에도 준용되어 무척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으로도 비친다. 그렇다면 미래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사람들과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진하고 않으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개방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창조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또한 두뇌도 약간은 있는 편이라 여기에 이런 좋은 성품들이 어우러져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쉽고 그리하여 보이지 않게 그들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람들과 잘 사귀고 그들의 마음을 잘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큰 재산이다. 지적 재산이라고 해야 할까, 정서적 재산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최대공약수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의 선물을 나누어주는데도 능하다. 옛 그제 아빠에게 보낸 책갈피 편지에 이렇게 썼다. “늘 존경합니다. 아빠의 유쾌함이 제 삶의 긍정으로, 행복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딸 시은 올림.” 여기에 이제 작가를 꿈꾸며 병아리 걸음을 걷고 있는 김시은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다. 존경, 유쾌, 긍정, 행복, 건강...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이나 세상의 다른

측면, 즉 부정적이고 병들고 불행한 부면에 대한 관찰과 성찰과 대안 제시에도 좀 더 마음을 써야 할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은이의 단점에 대하여 말해야 공평할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앞서 말한 장점들의 뒷면을 살펴보면 알게 된다. 창의적이라고 칭찬한만큼 좀더 규칙적이거나 가지런한 모습은 아쉬운 점이 있다. 착하고 포용적인 점은 자칫 감정적이고 무비판적인 면으로 흘러 관찰이나 판단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흐를 소지도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이 또한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빠로서 딸의 단점을 더 이상 길게 쓴다면 진짜 아빠가 맞는지 의심하게 될 터이므로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더 많은 아쉬운 점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대부분 보완되거나 더 좋은 결과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뭔가를 적어보았더니가 이왕이면 한강 작가처럼 흔적을 깊게 남기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 Foreword

### 정아운

오늘 검은색 머리가 내일 갑자기

빨간 머리가 되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하루는 PD였다가, 다른 날엔 작곡가였다가,

또 어떤 날엔 마케터였다가,

오늘 이렇게 작가가 되어 나타나는 사람.

끝없는 배움의 자세로,

개와 고양이와 책과 뒤엉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저자 김시은은 이런 사람이다. 종잡을 수 없어 계속 지켜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의 인생을 응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난 항상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치열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이 사람의 비밀이 궁금했다. 어떻게 매번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 비밀은 그가 걸어온 길에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한 -  
부연 오자 내 글처럼 비틀 건가  
오가 입과 불 날 알아  
생이 고 앓을 지시 오하 스스로에게  
부 '순환' 이라며 뽀뽀 하자만  
부 데 하한 생애 출을 한 한양자  
생각해.  
크 자신을 살았 건. 이력만 삶이 태드일테니  
남은 생애 용서할 줄 두 자만이 자신에게도  
포할 수 없다며  
괴서 착순해. 오가 입오아 나의 삶은. 비틀  
불 날.

살아있는 생의 이야기는 무에서 풀안 읽는  
나에게 보충 생애는 해져있어.  
연 책을 보려면 특자야 내 생애를 사랑하고  
응찬하고 또 배웠어.  
생애가 배트 생애차 필 이 에게이의 코지한 읽는  
기쁨이란 -

몇 년후, 생애 바뀌진 특가 유에서 온다하든  
그 원리가 따라야 할것나는 생애가 생애 생애로  
개별한 기야.  
생애 생애기에게 내 생애  
- 특자 고진 비라 함께 하는 자 사는 -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루해서 소설만 읽는다는 그가 직접 자신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이 에세이에 담았다.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로운 김시은의 세계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독자들을 환영한다.

## Foreword

### 김태선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작가 김시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꽤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 그녀의 모습을 간단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작가 김시은과 필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서까지 꾸준히 만났다. 필자는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고 글솜씨가 대단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한 그녀의 성격과 에피소드들을 간단히 읽어보며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신실하다. 김시은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기독교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그녀는 내가 본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다. CCM이 매일 그녀의 헤드폰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단 하루도 빠짐 없이 교회로 향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녀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따뜻하고도 모두에게 상냥하다.

그녀는 유쾌한 사람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녀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가벼운 농담으로 차가운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그녀의 유쾌한 매력에 빠졌다. 필자는 상대방을 웃게 하는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섬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그녀의 이런 능력이 큰 장점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배려하는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신실함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작가 본인보다 주위를 더 신경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인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다.

그녀는 실행력이 강하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보인다.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책임감도 강하다. 그래서 시작하면 확실히 끝을 맺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시각에서의 작가 김시은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독자 여러분들이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면, 계속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켜본 김시은의 인생은 결코 순조롭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김시은 아트북’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만약 당신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의 도피처를 찾는다면, 그 목적지는 단연코 이 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살 언저리



# 재수생 여행객,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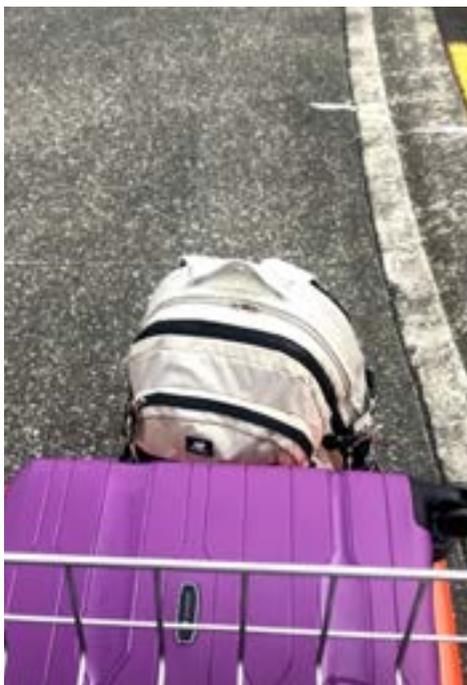
스무 살이 아까워 떠나지는 않았다.

스무 살에 스무 살의 가치를 알기란 어려운 법이니까.

딱 세 달만 자연 속에서 뒹굴고오면  
뭐라도 되었을 것 같았다.

사실,

누군가 20살에 뭐했냐고 물어볼 때, 재수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았다.



내 양심의 무게는 23kg이었는데  
수능 특강 책들이었다.

여행 내내 내 캐리어에서  
“너가 지금 이럴 때야?”라며 무게 있는 아우성을  
질러댔다.

하지만 내 몸은 언제나  
“그럼 어떨 때인데?”라며 무시했다.

대원외고에서의 삼 년.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데 급급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나의 무게추는 탄성을 잃어버렸다.

이어진

뉴질랜드에서의 일 년.  
휩쓸려 간 나의  
중심을 다시 찾아 왔다.

내 스무 살은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거면 됐다.



ALBERT  
PARK





없다. 낙원은.

20살  
뉴질랜드 대자연

젊음과 자연  
내가 평생을 찾아해멜 것들의 조합.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외로웠다.

한국에 있는 보고싶은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연을 걸었고  
수능 후 자유를 떠올리며 오클랜드에 있는 외교부에 갔다.

있다.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어디쯤에 있는지보다  
훨씬 중요한게 있다.















누군가 나에게 어울리는 도시를 말하면 서촌이나 북촌을 얘기하곤 한다. 지하철을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생각하  
는  
내  
이  
에  
를  
나  
을 구한다는 광고가 난 것을 보고 신나게 지원했고 10분 후 나는 이태원으로 가는 빨간 버스에 탔다. 이날 이후  
로 일 년 간 빨간 버스를 타게 된 것은 다양한 알바 경험이라는 목표 이상의 '미친-재미-'를 맛 본 덕분이었다.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이 시절을 추억할 때 미국에서 워홀을 했는지 한국에서 알바를 했는  
지 헛갈려 할 것이다. do you need receipt?가 6개월이 지나니 receipt?로 바뀐 여행  
영어 교육이었지만 말이다. 러시아인J, 모로코인R, 미국인K와 친해져 넷이서 얼마나 여행  
을 다녔는지 모른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는 항상 외국인인 척을 했는데 내가 한국말을 하  
는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주류야!"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어찌 보면 김태원 못지않게 이  
태원도 나에게겐 기타리스트였다. 한국 사회의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에게 '기타'들에 대해 생  
각해볼 기회를 줬다.

## 나의 기타리스트 이태원

기타1(한국의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기타2(한국의 이슬람인)  
기타3(한국의 타투문화)  
태원이는 기타들을 안고 사는 진정한 기타리스트  
였다.

내가 싫어하리라고 믿었던 태원이를 어느 샌가  
가장 자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태원? 위험하지 않아?"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애가 행동이 그렇지 애는 착해요-"라고 말하는 학부모 마냥 감쌌다.  
태원이와 함께 지내며 음식의 범위는 얼마나 넓어졌는지 예전에는 빵으로 찢던  
살이 당시엔 타코로, 터키 박스로, 인도 커리로 다양하게 찢다. 어쩐지 어른이 된  
것만 같았다.

이별은 생각지도 못하게 왔는데, 그의 이름 뒤에 '참사'라는 이름이 붙은 일주일 뒤 손님의 부재와 엄마의 뒤달로 그만뒀다.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슬픔을 짊어져버린 태원이 곁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 마냥 태원의 이면에 놀라고 당황했다. 하루만 타겟하던 빨간 버스를 일 년간 탔던 첫 만남마냥, 알바만 그만두겠다고 이태원에 일 년간 가지 않았다.



태원이.  
어쩐지 이태원을 미국식으로 부른 것 같은 이름.  
이 동네를 걷다 보면 몸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  
2022년 이태원엔  
하루 알바비를 택시비로 다 써도 이에 대해 머리 굴려 아쉬워하지 않았던 내가 있고, 경복궁에 가고 싶다는 러시아 친구의 말에 경복궁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다 넣어 깃발만 없는 가이드였던 내가 있고, 이혼 위기에 처한 매니저 언니와 함께 피마시며 함께 걱정해 주던 오지랴 넓은 내가 있다.  
나 하나 잘 되고 싶어 발버둥 치는 오늘의 내가 닭고 싶은 내가 닭지 못한 이태원이 있다.

언젠가 직장 생활에 지쳐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추억을 포로로 마음을 다 잡을 날을 안다.  
그 날 247번 버스를 타고 이태원 피자레볼루션 창가 자리에 앉아 페퍼로니 피자에 제로 콜라를 먹을 것만 같다.

위스키도 하이볼도 롤루레몬도 안 좋아하는 나에게 이태원은 참 정 많고 오지랴 넓은 기타리스트였다.

# 나의 일렉기타 이야기



음악이라는 예술 매체가 나에게 좀 서럽다.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첫번 째 장래희망은 마에스트로였다.

초등학교 1학년 치고는 꽤나 진지하게 되고 싶었는데 노력 외에도 천재적인 재능이 필요한 그 영역에 나는 조금의 재능조차 보이지 못했다.

피아노도 플루트도 하다못해 기타도 남들의 두 배를 연습해야 겨우 비슷하게 할 정도였다.

그래서일까 음악에 대해서는 잔머리만 늘어갔다.

음악 실기 시험에는 늘 음악보다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준비해갔다.



나 뭔가 머리 색이 이래가주구 (?) 조잡할 것 같애

22살 정도면 이제 잘할 때도 되었다는 마음에 락밴드에 지원했고 붙어버렸다.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7:1의 경쟁률을 뚫은 내가 어이없을 지경이다.

당시엔 선배였고 지금은 친구가 된 수연이의 마음에 쏙 들었던다.

그래서 밴드는 재밌었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역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베이스”로 겹멋에 대한 논문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뒤로 갈수록 어이 없기 보다는 신기했다.

일기장은 “재네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밖에 사회화 시키지 못했을까”라고 규탄한다.

쓰는 단어 하나 닳기 싫어서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다.

밴드부에서 나온 후,  
작곡을 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뜬금포일까 하겠지만, 그냥 난 인복이라고 생각한다.

밴드부에서 기타를 맡아 강의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제안하셨고 나는 또 음악에 저줬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가진 감각 중에 뇌에 가장 늦게 전달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한다.

결과를 보고 다섯 번 째 대차게 고백한 짝사랑 상대에게 이별통보를 대자보로 받은 기분이었다.

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 고백한 여자는 갈피를 잡았는데  
고백의 이름은 미디작곡이었다.  
나에게 맞는 “음악 노름”을 겨우 찾은 것이다.

재밌었다.  
감정을 음율로 만든다는게 행복했다.





그렇게까지 음악과 친해질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에픽하이의 one과

massive attack의 angel을 이유로 주며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한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끝마침표는 없나보다.

친구와 떨어져  
나만이 오롯이



해결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NO PHOTO TAKING PLEASE STAY BEHIND THE LINE

나의 기타리스트  
이태원

정류장 - 한로로

난 많은 걸 두고 떠날래  
너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꼭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를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산책 - 백예린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뉴질랜드 갔다왔으니  
재수로 치자

우린 - DAY6

내일이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떨고  
있는 거야  
희망이 떠오르면 절망은 저무니까 기쁨만 기억하고  
살자 우린 우린 눈앞이 다 캄캄해도 어둠이 짙어  
보여도 틀림없는 사실은 다시 빛은 돌아와 모든 걸  
바라보며 살자 우린 우린 우린

스물 다섯 스물 하나 - 자우림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우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오네  
우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 내가 나를 망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

## journey - woodz

걸어온 날을 기억해  
바라던 순간을 위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을 맡긴 채로 날아 멀리  
이 바다 너머 저 작은 섬의  
또 다른 나를 마주했어

## 오늘은 잠에 들 거예요 - 유다빈 밴드

지나감으로 바래져 가던 마음에  
하얀 눈은 다시 우릴 찾아오네  
걸음이 남긴 상처도  
참아왔던 눈물도  
언젠간 순간의 찬란함이겠조

작전명, 노인

## older - Sasha Alex Sloan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갈 위해서  
남겨두겠소.







"나는 당신을 통해 당신이  
당당하다고 믿어 왔어요."

저만 자랑할게 아니라 당신도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통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당하게 그래, 전혀 당당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 ESSAY

## 내가 나를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믿음

**들어켜보면, 운 좋게도 인생의 주도권은 늘 나에게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일본에서 막차를 놓친 것도  
중학교 2학년, 가기 싫은 학원을 끊고 가고 싶은 학원을 등록한 것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 지원서를 내려 간 것도  
모두 나 혼자였던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나의 기호였던 것을 안다.  
늘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셨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다.

유난히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세 번 째 아이를  
부모님은 유별나다 생각하지 않으셨다.  
앞선 두 명의 유난히 만화 빠져있고, 유난히 인기많은 자식에 비해  
어쩌면 더 안전계도에 있는 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외로웠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에 비해 적은 사랑을 줬다.  
외로울 틈이 없어야 마땅한 나의 학창시절 촘촘한 타임라인의 배경색은 종종 서럽고 아렸다.  
내가 바로서지 않으면  
기댈 곳 없이 쓰러진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그럴 때, 세포들이 주는 용기에 귀기울인다.

**“난 여전해.”**

166cm의 살구색 탁상에서 이뤄지는 토론에 주제가  
24년 째, “김시은 활성화”라니.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할 이유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세상에 두려움보다 권태로움을 느낄 때 짬, 내 세포들은 줄고 줄어 끝을 향해 다가갈 것을 안다.  
그러니 더더욱 그 조건없는 사랑에 두려움을 의탁해야겠다.

108억개의 세포와 하는 이 팀플에 발표자로서 그들의 노고를 헛되이 만들 수 없으니 말이다.





때        후배 방송제 직후  
장소     숙대 입구역에 있는 한 바  
시간     오후 10시

후배들 방송제를 관람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뒷풀이 장소로 향하는 시은, 유진, 수민, 연빈, 아윤.  
갑자기 수민이가 시은언니 성격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가  
3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는 그녀의 말에 뺨터졌다.

(유진)    그게

(시은)    왜? 말해봐?

(유진)    아 뭐랄까

(아윤)    (웃음) 뒷담이었나봐

(유진)    아 근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 왜냐면 별로...너의 대외적인 모습과의 차이였어

(시은)    뭔데? 나도 궁금해

(유진)    너는 근데 어쨌거나 뭐라고 해야하지 꽤 가까이에서 봐도 되게 따뜻한 사람같잖아. 굉장히  
문학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같은데

(시은)    여기서 '데'가 나오면 안 되는데?(웃음)

(유진)    (웃음) 내가 그 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시은)    (웃음) 아니 그냥 말해도 돼

(유진)    너의 바운더리가 되게 높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  
이... 사랑과 그렇지 않은 면모까지 다 드러나는데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 사람에게 헌신을 더 하더라도 정을 더 주지 않는?

(수민)    맞아맞아

(시은)    오...

(유진)    굳이 이 사람에게 싫은 소리하지 않고 접점을 만들지 않아.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  
니라 성가시지 않기 위해서?

(수민) 나도 있어! 내가 그 당시에 언니랑 안친했었거든?

(시은) 그 당시가 방송제 직전이면 우리 2년 됐을 때 아니야?

다 웃음. 도대체 언제 친해진거야라며 웃는 유진, 연빈

(수민) 오히려 방송제 끝나고 언니를 일이 아닌 사람으로 보면서부터 언니가 진짜 다가왔던 것 같아. 언니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언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나면 약하게 친했을 때와 답하게 친했을 때가 정말 달라

(연빈) 어 맞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연빈) 겉으로만 보는 너와 완전 좀 오래 보는 너와 그게 달라. 단편적으로 보는 너와 길게 보는 너가 달라

(수민) 그리고 일적으로 보는 언니와 일과 멀리 떨어져서 보는 언니가 또 달라

(시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

(유진) 맞아 그래서 되게 냉철한 성격이야

(수민)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폭소하는 시은

(유진) 냉철하다는게 차갑다가 아니라

(시은) 냉철하다는 냉이 차갑다 아니야?(웃음)

(유진) 차가운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차가움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태도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너는 어쨌거나 머리로는 그걸 되게 잘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 감정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과 그

런 것들이 사고가 조금 되게 냉철하게? 분석적으로가 더 맞는 것 같다.

(수민)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은) 더 남았어? (웃음)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수민)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언니는 좀 효율적인 사람이야. 인간을 대할 때.

(유진) 맞아맞아

(수민) 언니 겉으로 봤을 땐 엄청 다정하고 약간

시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수민) (웃음)언니 나쁜 얘기가 아니야

(시은) (웃음)아 이 웃음은 나쁜 웃음이었어.

아윤 같이 터짐

(수민) 사랑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깐 언니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걸 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언니는 봤을 때는 아 언니 진짜 스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니를 알고 나서는 아 언니를 스윗하게 느끼는 사람은 언니랑 별로 안 친할 수도 있겠다

(유진) 맞아맞아맞아맞아 그거야 진짜

(수민) 근데 내가 처음에 유진 언니한테 시은 언니 진짜 스윗하다. 너무 좋은 말만하고 항상 칭찬만 해 준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그게 안 친하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

(유진) 맞아 시은이는 그게 디폴트값이야.

(수민) 그래서 나는 언니가 허물없이 해주면서부터 우리가 친해졌다고 생각했어.

(시은) 음~ 맞는 것 같아.

(연빈) 단편적으로만 보고 안 볼 사이면 너가 다 안고 가는데, 길게 볼 사이면 너가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라고 말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중한 성격인데 일에 있어서는 반대야.

나 이거 하고싶어. 이거 할 거야. 이거 해. 야

(수민) 나는 오히려 언니의 이런 모습이 좋아.

(연빈) 너는 살짝 난장판이 됐는데 안 친하면 그냥 제가 해결할게요라고 말하는 편이고 친했을 때는 난장판이 되면 너가 그럼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하고 피드백을 확실히 주는 편이야.

**(시은)** 아 맞아. 그런게 있는 것 같아. 안 친한 사람은 그 관계의 본질이 그냥? 할 거 하고 헤어지는 사이인데 친한 사람은 어쨌든 그 관계의 본질이 좀 다르다? 일이랑 감정이 완전히 분리되어있는데 감정이 사람한테 갔을 때 되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걸 관리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이 감정을 줄 수는 없어. 모두에게 친절할 건 나한테 너무 쉬운데 사랑이나 정을 주는 건 마음이 가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수민)** 근데 나는 이제 언니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오히려 방송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

웃으면서 마무리

ART MY ART



ART MY ART

# ART MY ART,

(SIEUN KIM, SOUTH KOREA, 2001 ~ ,  
2024, DESIGN PICTURE, PIXEL ON IN DESIGN, 73.7 X 92.1MM)





#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세포,

(SIEUN KIM, SOUTH KOREA, 2001 ~ ,  
2024, ACRYL PAINTING, CANVAS,)

(시은)

제가 그린 작품명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세포입니다.

처음에 바스키아 스타일로 시츄를 그렸습니다만 원하는 느낌이 전혀 살지 않아서 중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시츄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단순히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조건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해당 주제를 살려서 최근에 리움미술관에서 인상깊게 본 본 아니카 리 개 인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위에 눈들은 저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혈관이나 세포들도 저의 부정적인 시각에 상관없이 조건없이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시각을 담아 자기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담았습니다.

# 공허를 통제하지 못할 거란 믿음,

(SIEUN KIM, SOUTH KOREA, 2001 ~ ,  
2024, ACRYLIC PAINTING, CANVAS,)

(시은)                    마지막으로 기말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중앙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면과 외면을 대비시켜 표현했습니다. 먼저, 내면의 세계를 나타냈습니다. 얼굴을 우주로 표현하여 감정의 크기에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면은 현실적 제약을 담았습니다. 피부와 근육은 감정을 적당히밖에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며,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를 제 방식대로 풀어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것 이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주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개방적인 수업 방식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세련된 것들엔 배려가 담겨져있다.

TBWA 국장님께서 BMW 캠페인에 대한 피드백을 주실 때 깨달았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세련된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세상 모든 세련된 것들엔 배려가 담겨있다.

일례로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들은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있고,

세련된 공간은 사람들의 체력을 고려한다.

가끔 강압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신속성을 부러워질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이따금 다짐한다. 세련되어지자고.

"사회에 나가면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task가 주어져요. 이 과제는 광고, 마케팅 같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솔루션을 무엇으로 도출하는지는 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겪고, 행했던 모든 경험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요.

그러니 지금 이 경험도 좋은 바탕이 될 거예요."

2024.12.06 오후 2시 46분 tbwaXbmw를 마치며



**sieunfilm**

**뉴질랜드**

**갔다**

**왔으니까**

**재수로 치자.**

**21살 이야기**

# ESSAY

대학에 입학하기 한 달 전쯤인가  
새벽 세 시에 친구와 통화하다가 한숨 쉬며 인생에 대해  
호들갑을 떨었더랬다.  
낙관이 베이스인 내 인생에 이러한 투덜이라니,,,

정확한 워딩은 기억지 못하나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  
일 년을 그렇게 열심히 참고 공부했는데 대학도 사랑도  
내가 소중한 여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버려졌다. 였더랬다.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 22살 김시은이 너무 귀여운 거다.  
지난 3년간 부단히도 애쓰고 돈쓰고 용썼다.  
두 편의 영화를 찍고 열 댓 편의 뉴스를 만들고 셀 수 없을 만큼  
영상과 행사를 기획했다.  
프리랜서 마케터도 해보고 장학금도 타보고 공모전에서 상도  
받아봤다 심지어 작곡과 홈쇼핑도 했댄다.

참 열심히도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졌다.  
잘했다. 김시은.

그렇다면 22살의 나에게 자랑스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호들갑 그만 떨라고  
그 때 졸음을 뒤로하고 넉두리를 들어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문자나 남기고 자야겠다. 그만.







**LETTER**

for  
birthday

시은아 너무 늦은걸까...? 생일축하해

오늘 하루종일 기획서를 쓰고 딱 기본종계 11시 50분에 제출하고 “아싸 세이브!”를 외치고 뭔가 쉼을 느낀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일축하를 놓쳐버린 것을 알고말아버린거죠...

구차한 변명이나 하자면... 요즘 조금 정신을 놓고 살다보니까... (강 변명 필요없이 지송합니다 ㅈㅈ)

혜화에 빠질나게 다니면서, 또 하교를 하며 안국역으로 걸어내려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시은이 생각일지도 몰라. “저 스타벅스 어느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시은이가 앉아있지 않을까?” “저 햇별 잘드는 북촌의 운치 있는 카페에서 그 따스함을 느끼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곱씹으며 조용히 앉아보고, 커피도 한 잔 마셔보고, 항상 그런다

사실 맞아 너가 너무 보고싶어

최근은 아니고 몇 주 전 시은이가 꼭꼭 눌러 답아서 써줬던 장문의 dm 정말 여러 번 읽었었지, 어쩌면 시은이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에, 웃음에 관대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웃음을 많이 주고,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아야.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음악, 영화, 책, 그 밖의 취향의 날카로움으로 알고 있어.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고 예민한 사람들일지도 몰라. 미친듯이 슬플 때는 그게 마냥 싫더라. 왠지 기댈사람 하나 없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헤매는 고래 같아서 우울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혹은 시은이는 그렇게 밝을 수 있는게 아닐까?

스물넷이 되어서 나의 취향을 술술 풀어내고, 또 상대의 취향을 몇시간이고 듣는게 기꺼운 사람은 정말 너밖에 없을거야. 해가 거듭하고, 시은이를 사적으로도 만나고,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고, 너의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근황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든다? 나도 고등학교 때 시은이를 알았더라면 동창이면서도 스무살 이후에 라포를 쌓은 우리가 갖는 청소년기에 대한 유대감, 그리고 현재에 대한 동질감에서 비롯된 관계는 정말 묘하고도 즐거운 것 같아.

오늘이 참 화창한 날이었던 만큼 시은이의 마음도 화창했기를 바라고, 별 잘드는 혜화와 대학로를 언젠가는 안국만큼은 아닐지언정 그 나름의 귀여운 구석탱이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오기를 바라. (여러 곳 놀러가보자 ㅋㅋㅎㅋ)

생일 축하해!

(ps 선물은 알כות 문진과 꽃이야! 난 병렬읽기 하는 책을 여러 개 쌓아두고 그 위에 문진을 올려놓거든. Its like pressing "hold" button to all the drama, the knowledge, the emotions that those books carry) (and it works!) 언제나 터무니 없는 선물실력을 가진 저를... 용서해주세요와요 ㅋㅋㅋㅋㅋ

조만간 만나자! 중간고사 끝나면 말해줘! 난 담주 화요일에 끝나!!

(ps 첼로 연주 가을에도 또 해 ㅋㅋㅋㅎㅋ 시은이 와두 돼!!! 너무너무너무!!! 심지어 대학교 친구들도 왔는걸) (고등학교 친구 이기는 대학 친구 없는거 알지? 대원 친구들 제일 좋아하자나...)

from. 승주



이매진 아역 최하은

<내레이션>

감독 역 김수현

조연출 역 박수인

**독립영화**

**감독 되다**

감독 김시은

조감독 김수현

박수인

은혜의

## 그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 것

여행지에서 맛 없는 식사를 했을 때  
욕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평양냉면 맛집에서 실망을 안고 갈테니 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랑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싫어했던 내가  
영화를 사랑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하려한다.

### **S#23. 김시은 감독되다.**

카메라의 무빙대로 따라오시라

A dimly lit room with a chandelier on the left, a speaker in the center, and a television on the right. The scene is dark and moody.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SCENE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90 / CU / fix  
90 / CU / fix

what is 2490 / US / fix  
2490 / US / fix



- 1) one take → 2490 / US / fix
- 2) f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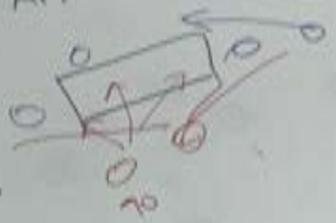
obtain 90m (LA / CU / steady) 90 일



90 US /

2) fix / 2490 / fix  
90 / CU / fix

3) fix / 2490 / fix  
fix / 90 /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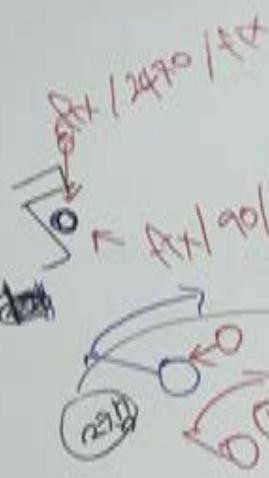


fix

90 US /

insert) [ 2490 / fix / fix  
90 / fix / CU

(fix)



insert) 1) 2490 / fix / fix  
2) 90 / fix / fix

2) 90 / fix / fix



남주는 사진가 거든?



어떤 사연으로 할까?



사진가 아버를 살인자로 하는 거 어때요?



주인공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 김에 옆방에서 히치콕 현기증 소리 나는 거 어때?





나라면 처음엔 가해자 아들이 사진관 차렸다는 소리에 분







저 통은 죽은 하늘이가 계속 갖고 놀던 거예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알던 사람이 소수자가 되면서





죽도록 미운데 죽도록 사랑하는 거지



2020년



2021년



감독님 근데 왜 둘째 이름이 이매진이에요?



상상이거든



2022년





유 모 씨의 아들이 피해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와.. 인간은 결국 용서를 못 해?

감독	김시은
조감독	김수현
	박수인
	윤혜원
연출부	정수민
스크립터	김수현
슬레이터	윤혜원

SCENE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 #1 script



각본은 이미 완료된 상태.  
각본 작업은 꽤나 재밌었는데, 인물을 탐색한다는 것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과 결부되었다.  
이태원에 있는 헵시바 극장에서 조감독과 회의를 했다.

# #2 audition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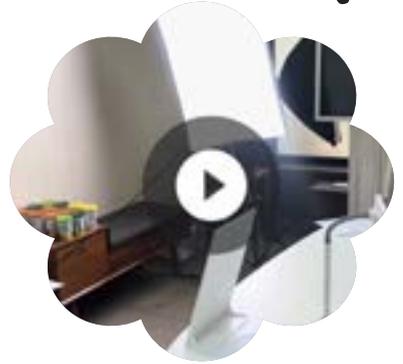
배우 모집을 위해 배우 오디션 공고를 올렸다.  
공고 하나를 만드는 것 역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데  
시놉시스와 인물 소개도를 만드는 사람,  
모집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  
오디션 장을 대여하는 사람 등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 #3 audition day1



영화 촬영 일정이 촉박해서 늘 분주했다.  
학교에서 콘티를 만들다말고 택시타고 강남역에 가서  
오디션 심사를 했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데 5분의 짧은  
단극을 보는 것 같았다.

# #4 audition day2



강남역에 칼부림 사건이 여럿 일어난 날이라  
평소보다 더 긴장됐다.  
오디션을 보는 내내 지원자들의 연기와 열정에  
감탄했다. 첫 눈에 캐스팅한 역도, 아무리 생각해도  
적합한 배우가 없는 역도 있었다.

## #5 dinner



조감독 수현님께 밥 사주면서 배우 합격 문자를 보냈다.  
재수할 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주 오던 일본식 오프라이스  
집에 대학생 신분으로 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좋았다. 이 참춘이.

## #6 Equipment Rent



장비를 대여하는 것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  
이 이후에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20명이 붙어서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네 명에서 해결한게 신기할 지경이다.  
당시에는 신나서 했다.

## #7 Equipment TR



짐벨부터 조명까지  
마이크부터 감독모니터까지  
몇 개의 화선이 바닥에 깔렸는지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우리 참 성실했구나.싶다.

## #8 Table read



촬영 전 날, 배우들과 대본 리딩하러  
헝시바 극장에서 만났다.  
초보 감독은 기싸움에서 완전히 져버렸다.  
배우들의 요청에 다음 날 조감독들과 밤을샀다.  
우리가 부족하게 맞았다.

# #9 day 1



새벽 네 시까지 회의하고  
아침 일곱 시까지 조감독들과 모여서 회의했다.  
근처 문구점에서 급하게 재봉을 하고  
배우들을 맞이했다.

# #10 day 1



첫 날 촬영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대본을 대폭 수정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촬영을 마치고 장비와 소품들을 모두 옮기고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 #11 day 2



급하게 후배들을 불러서 인원을 증원했다.  
미술팀에서 피를 만들고  
연출팀에서 스크립트를 정리하고  
어제보다 발전한 오늘이었다.

# #12 day 2



순탄하게 돌아갈 것 같았던 촬영장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불마이크가 없어졌다며 조감독이 멘붕상태에 빠진  
것이다. 택시회사부터 경찰서까지 동선이 밝히는  
모든 곳에 문의했지만 답은 없었다.

# #13 last scene



기적적으로 붐마이크를 찾고  
시간에 쫓기며 촬영을 마무리했다.  
배우들과 아쉬운 마무리를 지으며 촬영장을  
떠났다.

# #14 ed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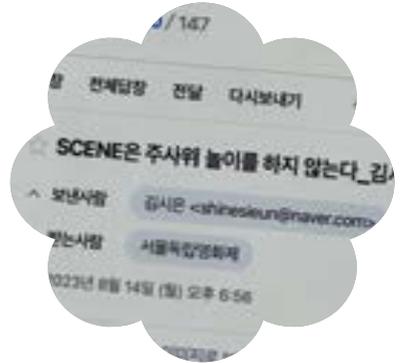
조감독들과 밤을 새며  
집에서 후시 녹음을 마무리했다.  
급하게 대본을 바꾼 탓에 촬영본이 중간중간  
비었는데,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 #15 editing



부제였던 <매진>을  
<scene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로  
수정했다.  
컷편집, 음량 조절, 색상편집을 마무리했다.

# #16 the end



출품작을 보내며  
일주일만에 영화 한 편을 찍었다.

참 멋 없는 한 줄 평인데  
재밌었다.

# 작전 목표 노인

‘노인과 바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이 들어가면 뭐든 우울해 보인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드함에 몸서리를 친다. 노인 포비아가 있다고 묻는다면 맞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인’이 된 나 포비아이다. 죽어도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기는 싫다.

에 대해 87살 할머니에게 얘기할 수는 없다. 평생 청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눈 뜨고 코 베인 인생의 피해자이자 내가 당할 사기의 선례일 테니.

할머니를 떠올렸을 때 단 한 번도 어린 아빠를 안고 있다거나 가족과 함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 적이 없다. 혼자 있는 나이 많은 여성의 이미지만 어렴풋이 떠올랐을 뿐. 이럴 때면 아빠가 가여워진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확 나는 아빠에게 사랑을 줄 것 같지 않은 할머니, 그 사이 간격을 아빠 혼자 메웠으리라...하며 혀를 차곤 한다.

애정 없어 마땅한 이러한 할머니가 내게는 최고의 친구이다.

‘가족이라고 서로 사랑해야 해? 마음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의 뼈뼉함을 유전자로 공유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맞아서 시간을 공유한다.

“경기여고 시절에 친구들이랑 종로까지 막 걸어가곤 했는데 그때는 거리에 시체들이 막 쌓여 있었어. 그래서 더 낭만 타령을 했나 봐. 낭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낭만’이라는 단어 그 자체 밖에 없었으니까.”

내 일기장에 나올 법한 생각들이 핸드폰 너머에서 들릴 때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친구로 만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것은 쓰는 단어나 공유하는 세대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기 싫은 나에게 할머니는 매를 먼저 맞은 나 같은 존재이다. 그녀의 삶의 방식이 따분하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 학원에 SNS에 생활 패턴만 본다면 10대 청춘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은 변하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라 믿는 할머니라 느린 신체 반응과 학습 능력을 인지하기도 전에 나도 안 하는 것들을 하고 계신다. 내가 질투하리라 만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 안에서 정치적 난무한다. 할머니의 종로, 시체, 낭만 이야기를 듣고 광화문 거리를 걷는데 일생의 한 시기 짙은 늙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어딜 가든 회상할 거리가 많다는 것에 일종의 부러움을 느꼈다.

가족 안에서 노인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유튜브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차례 지



내는 법도, 아이 키우는 법도 더 이상 노인만이 줄 수 있는 지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맞는 말이다. 의아하게도, 내가 할머니를 보면 느낀 건 할머니는 투박한 이음과 얼굴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어른보다는 친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린 사실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까? 청춘을 눈뜨고 코 베인 그들도 사실 우리처럼 매 순간이 새롭고 두려운 건 아닐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지혜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진다.

지혜를 더 이상 주지 못한다는 할머니에게서 나는 늙어갈 용기를 얻는다. 가족 중 최고령인 그녀가 사랑받을 이유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평생을 이뤄나갈 작전명, 노인의 틀을 잡아준 모델일 테니 말이다.

세빠시,  
임원단,  
내가 믿는 신에 관하여



## 종교를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부모님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죠.

제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에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갔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웃음)그렇리가요. 사실 살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해본 적은 없어요. 너무 비이성적인가요?

삶 속에서 신의 존재를 와닿게 느낄 때도 종종있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아래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큰 위로랍니다

## 그럼 늘 신실한 상태였나요?

(웃음)그것도 그렇리가요. 사실 대부분 신실했어요.

딱 6개월만 빼고.

친구들이 그 시기를 세빠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상에 빠진 시은”이라나요.(웃음)

그 때 청년부 수련회 중간에 재미 없어서

중요한 일 생겼다고 집 가고 그랬어요.

재미없다고 홍천에서 서울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웃음)



## 세빠시는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나요?

저랑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외국인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때 다 한국을 뜨더라고요.  
마법같이 전부 사라졌어요.

더불어서 그 때 임원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정신차리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그 때 짬 노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 임원단은 어땠어요?

그 때는 힘든 줄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힘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봐요.(웃음)

새벽 6시에 했던 임원 기도회, 여름 아웃리치, 분기별 주보 디자인 수정, 매달 있는 행사, 청년부 공연, V-LOG까지 전도팀과 카페팀 초등부 교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초등부 끝나면 카페 봉사하러 가고 카페 봉사 끝나면 3부예배 안내서러 가고 3부 예배 끝나면 회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님이 저를 일 좋아하게 만드신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웃음)

사역 때문에 지치긴 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초등부 봉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초등부 성탄 발표회 전에 성호 오빠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오빠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라고 물었던 건 아직도 회자돼요. 로맨스가 아니라 스킬러입니다(웃음) 그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며 “시은이가 오죽했으면...”이라고 운을 떼더라고요.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성탄절 발표회를 사회를 맡은 김시은  
옆그제가 신년 예배인 것 같은데 벌써 성탄 예배  
그러니까요~ 시은씨는 올 한해 어떠셨나요?  
저는 청년부 총무로 또 초등부 교사로 감사함  
에서 또 고등부에서 따뜻하고 감사  
성탄절에 대한 사





## 세빠시는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나요?

저랑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외국인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때 다 한국을 쓰더라고요.

마법같이 전부 사라졌어요.

더불어서 그 때 임원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정신차리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그 때 짬 노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 임원단은 어땠어요?

그 때는 힘든 줄도 몰랐는데 돌아켜보면 힘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봐요.(웃음)

새벽 6시에 했던 임원 기도회, 여름 아웃리치, 분기별 주보 디자인 수정, 매달 있는 행사, 청년부 공연, V-LOG까지 전도팀과 카페팀 초등부 교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초등부 끝나면 카페 봉사하러 가고 카페 봉사 끝나면 3부예배 안내서러 가고 3부 예배 끝나면 회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님이 저를 일 좋아하게 만드신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웃음)

사역 때문에 지치긴 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초등부 봉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초등부 성탄 발표회 전에 성호 오빠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오빠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라고 물었던 건 아직도 회자돼요. 로맨스가 아니라 스킬러입니다(웃음) 그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며 “시은이가 오죽했으면...”이라고 운을 떼더라고요. 억울해요.

## 크리스찬의 삶은 뭐가 다른가요?

그러게요. 달라야겠죠?(웃음)

한 평생 크리스찬이어서 뭐가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상황도 사람도 주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보면 어떤 아픈 감정들도 이를 이상 갖기 어렵더라고요.(웃음)

## 신에게 실망했던 적은 없나요?

전혀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무언갈 바라면서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고 갔던 때가 있거든요.(웃음)

당시에는 주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로 했는데 안 들어주실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엔 저는 제가 원하던 걸 못 가졌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을 되게 원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도 오죽 주고 싶었을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길을 예비하신게 분명하다며.

그 때 집에 오면서 울었는데 서럽거나 서운해서 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울었어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먹먹해져요.

## 크리스찬으로서의 목표가 있나요?

저는 주님이 저를 보고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심오하고 절절한  
피조물은 못 될 것 같아요. (웃음) 대신 바라만봐도  
재밌는 그런 피조물이 되고 싶어요.

문학을 그렇게 봤는데도 제가 가장 행복할 때  
하는 말이 '재밌다'네요(웃음)

세상 끝난 날 저를 지켜보는게 재밌었다고  
말해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삼 년 정도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봐라? 저기서 선을 택한다고?”

“아 재 또 일벌리네”

“저러고 또 도와달라고 하겠지”

라며 리모컨 들고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 50년 후에도 신을 믿고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저를 적당히 아는데  
저는 신을 부정하면 허무해 죽을 걸요?(웃음)

장난이고, 지금보다 더 가슴 절절하게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겐 주님은  
터프하고 러프하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주시고, 꾸짖을 게 있으면 바로 꾸짖으시거든요.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하는 저를 다루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웃음)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알아요. 50년 후면 제가 받은 사랑이 더 쌓였을  
테니 1아멘 1눈물 할 것 같은데요?(웃음)



1) (B/O) 안영 (B/O) 타카 씨

(B/O)

(B/O)

(B/O) 지학할 장면 (no. 7) 여기서 내가 나열되어있고 순회 지학할에서 예수

(B/O)

(B/O)

인지, 해경, 기독교

창용 (B/O)

창용 (B/O) 장영 (B/O) 장영 (B/O) 장영 (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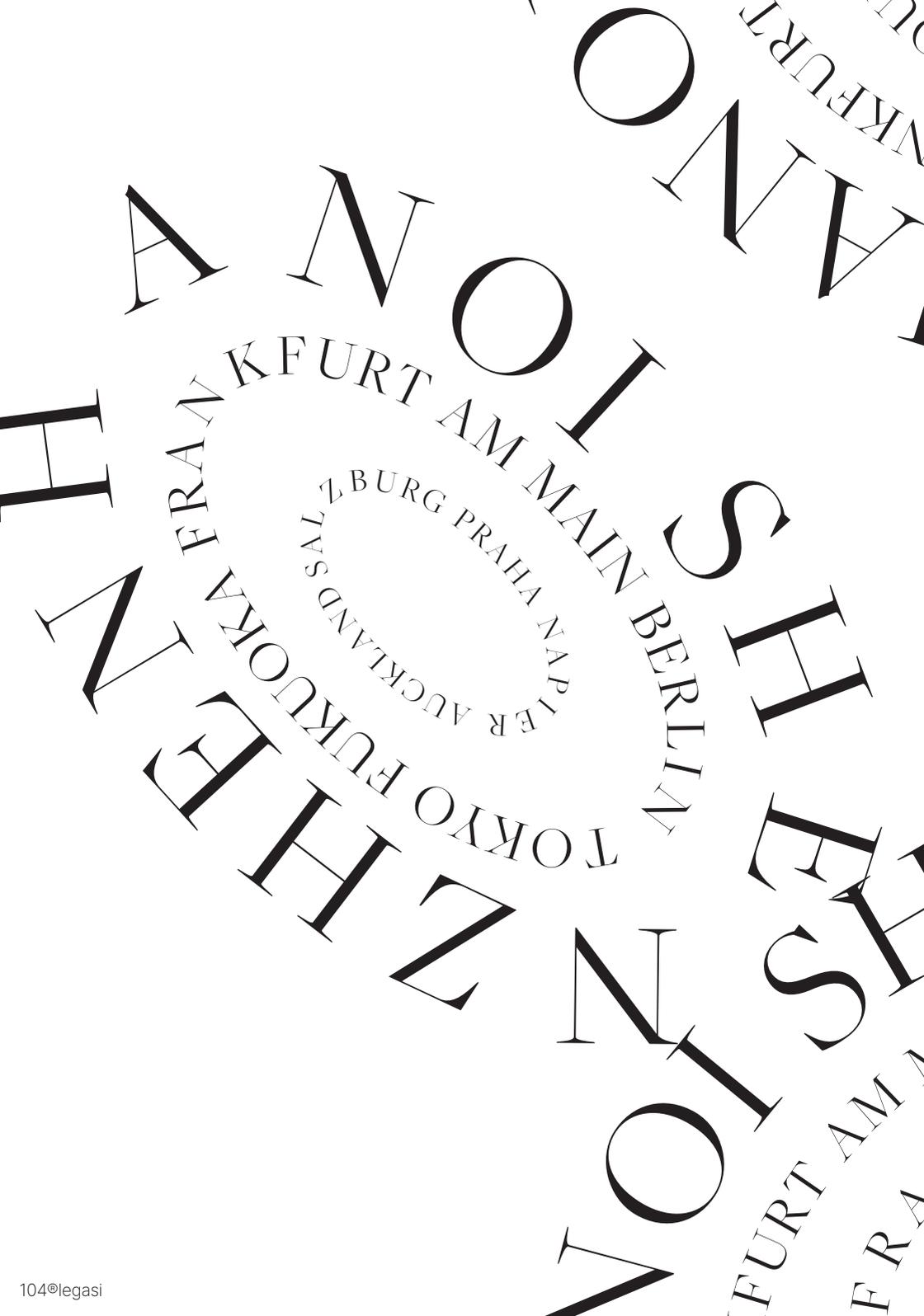
계속 바뀔

의사 (B/O)



(어이없다는 듯이) 내가 너네를 왜 안도 하나/ 표의

쇼리 (B/O)



상처 없는 공간  
으로의 여정





# TRAVEL



하리보의 나라에서  
젤리의 미래를 묻다



프랑크 푸르트에서  
드레스덴으로 가는 기차 안

극한의  
화려함

유럽에 온 느낌



공사중이어서  
지저분한 배경을  
뒤로하고 찍은 초빙거 궁전  
108@lega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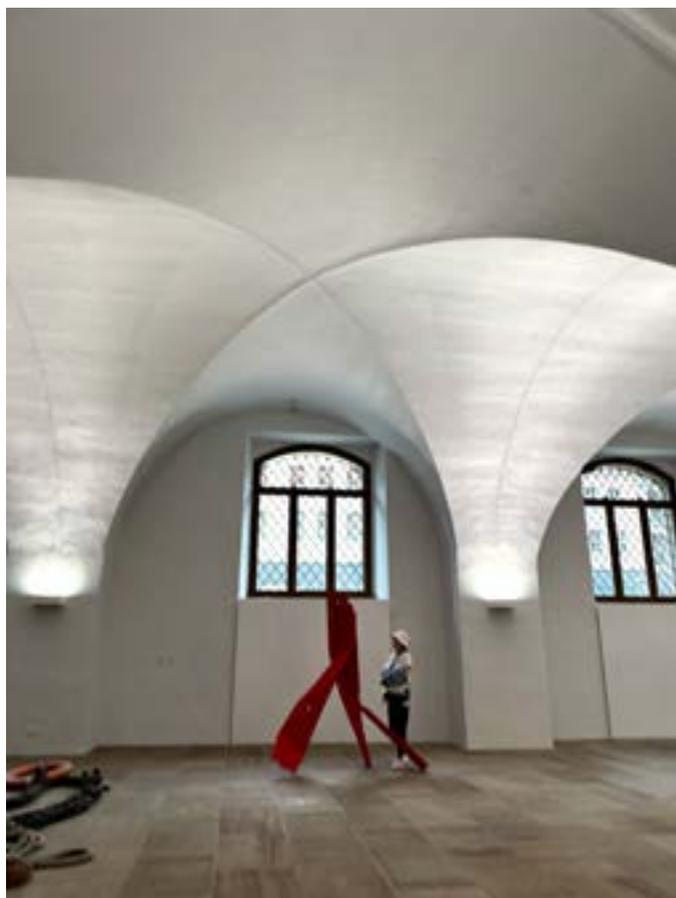


상처와 치유  
노래와 학문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

드레스덴  
현대 미술관에서 만난  
귀요미와 그의 할아버지









Buchhandlung  
Walther König

Die Buchhandlung Walther König

ist ein Teil der Gruppe Walther König

in der Gruppe Walther König

Genova Ge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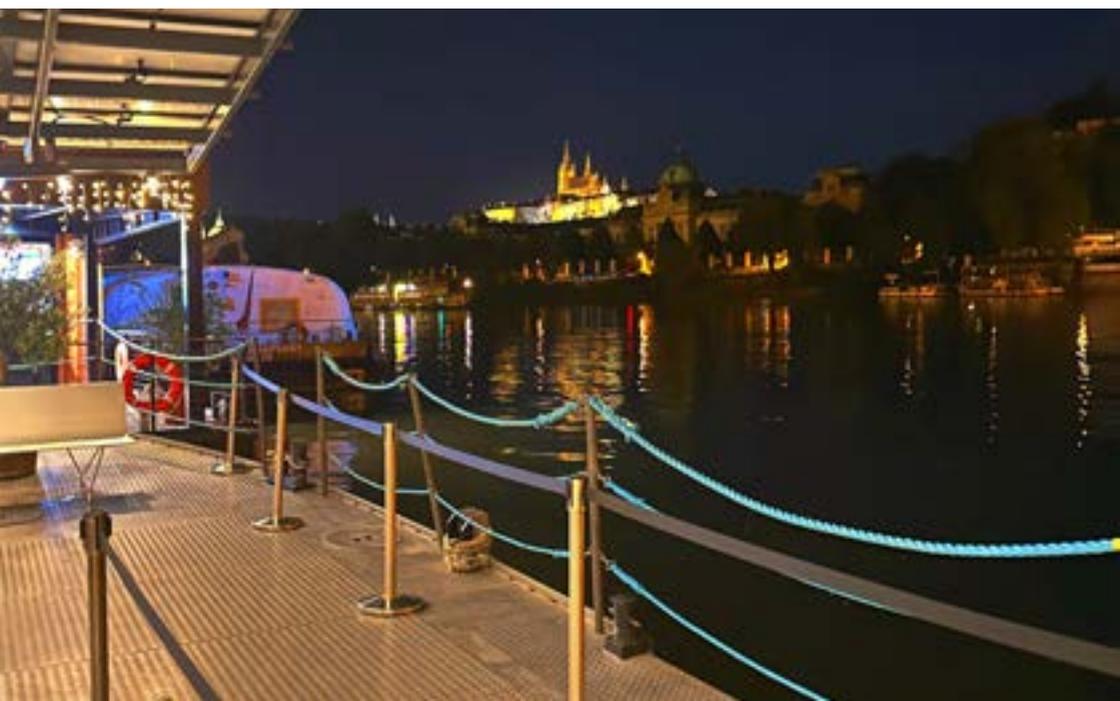
























I wish you a life full of joy, smiles & happiness

I wish you a life full of joy, smiles & happiness

LA DOLCE VITA

LA DOLCE VITA

LA DOLCE VITA

LA DOLCE VITA

스윗틀

스윗틀

스윗틀

스윗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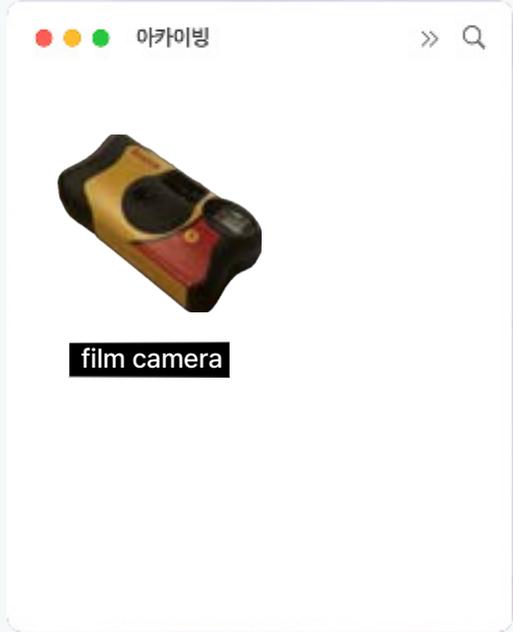
# life | template



Café & Dessert



Culture & Art



TRAVEL



WORK



sieunify

legasi:20대(상)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28일

지은이 김시은

펴낸이 김시은

펴낸곳 sieunify

전화 010-5090-9370

메일 shinesieun@naver.com

인스타그램 @\_sieun\_kim

김시은, 2024

본 인쇄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생각하건대

누군가 대학교에 와서 이 년간 배운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케팅? 회계? 파이널컷? 기획? 다 찰나의 배움들이었던 것 같고 2년을 연속적으로 배웠던 건 혼자 즐기는 법인 것 같아.

혼자서 산책하고, 전시회 보러 가고, 카공하고 그러다 가끔 소중한 사람들과 밥 먹고.

23.11.12.(일) 12시 5분

birthday-type girl

"당신의 관심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어요.

23.07.29.(토) wisi-eun



2001.04.19. 그녀가 살아졌다

드라마 <무지>

"무지 이면지가 원고지가 될 때까지 참 많이도 글고이고이웠다. 멋모르고 무지해서 들어왔고 무지하게 사랑했던 내 방송국 무지해서 미워했고 무지해서 사랑했던 내 청춘 희고 빈 무지노트에 기획안을 끄적이고 픽셀에 색을 입히며 젊음이 다 하는 동안 우린 참 많이도 무지하고 무지하고 어마무지했구나"

영화 <SCENE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감독님은 영화 왜 만들어요? 나? 신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죽이는 거지.

와... 인간은 결국 용서를 못 해?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못해 아 그리고 미술팀이 하얀색이 용서 전 빨간 색이 용서 후라고 말해줘

감독님. 근데 이 영화가 결국엔 하고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아 아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연극<분별>

"주인이 없는 시대 자기 자신이 신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향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새겨야하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역사 상 청년들이 마약에 가장 많이 취하는 시대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찾은 진정한 신앙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었다."



내 사랑이 이겨

얼마나 멋진 각오이고 위로인지.

졸음 섞인 토익도 눈물 섞인 에세이도 불친절한 사람도 무질서한 지하철도

호방하게 날뛰어도

미안하지만

내 사랑이 이겨

24.03.13.(화) <구의 증명>을 읽고

birthday-type girl

자신감 넘쳤지만 오만했고 배려한다 했지만 또한 이기적이었던 나의 우들을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였다.

무심한 나를 유심히 배려해주는 당신들께 오늘 누리지 않았던 설렘과 기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4.04.19.(금) 스물 세 번 째 생일

